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 및 문화예술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Enhancing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in Adolescents: Focusing on Rhythmik Human Care Academy

한현석¹, 엄희정^{2*}

Hyunsuk Han¹, Heejung Eum^{2*}

요약

본 연구는 리드믹 중심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 및 문화예술역량 증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및 심리적 회복 및 치유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된 예술융합 인재 교육과정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43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은 회복탄력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5개 요인(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자아존중감은 상승하였고, 지각된 스트레스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및 문화예술역량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이는 향후 지자체 주도의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개발 필요성을 나타낸다.

핵심어 : 예술융합, 리드믹휴먼케어, 회복탄력성, 문화예술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hythmik Human Care Academy program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of adolesc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K-12 students residing in Jeollabuk-do. The arts-integrated talent education program aimed at improving physical abilities, fostering creativity, and enhancing psychological recovery and healing abilities,

1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si,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hysh@jbnu.ac.kr

2 Industrial Cooperation Found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si, Republic of Korea [Special Professor]
e-mail: eum03@jbn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ugust 10, 2024), Review Result(1st: August 28, 2024), Accepted(September 9, 2024), Published(September 30,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nd was implemented from July 1 to December 9, 2023. A total of 43 participants participated pre- and post-tests assessing psychological resilience, self-esteem, perceived stress, and the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aired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participants showed an average increase in psychological resilience. Additionally, all five factors of the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social interaction, cultural arts habituation, and enjoyment of leisure culture) showed average increases post-program participation. Second, self-esteem increased and perceived stress decrease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these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hythmik Human Care Academy program was found to be generally effective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of adolescents. The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rts-integrated program for adolescents in regions with relatively limited cultural access,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arts-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and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Keyword : Arts Integration, Rhythmik Human Care, Psychological Resilience, Cultural Arts Competence

1. 서론

예술교육은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던 예술교육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치유로 확산되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인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은 국민 체감형 교육을 지원하며, 예술이 곧 삶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1]. 융합교육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 교육 분야의 중점 과제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STEAM)를 선정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2].

예술융합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예술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대규모 기관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전문인 양성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 대부분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은 드물다 [3].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리드믹(Rhythmik)을 중심으로 한 예술융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두었다.

-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수도권 편중 현상의 완화

리드믹은 음악과 움직임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으로, 1925년 독일 하노버 음악과 공연 미디어 대학에서 첫 학위가 개설된 이래 예술, 교육, 치유 분야의 융복합 교육으로 발전해왔다 [4]. 리드믹은 생리학, 의학, 공학, 심리학 등의 학문이 결합되어 감각 기반의 자발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통합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본 연구의 예술융합 교육은 독일 대학의 리드믹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20주간 총 100시간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리드믹 휴먼케어’라 명명하였고, 심리적 효과성

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증상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7%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예술 융합교육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여 학습자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따라서 예술융합교육은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8].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감을 나타낸다 [9]. 이 두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성공적인 삶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 예술융합교육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효과(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문화 향유)를 측정함으로써 [11], 리드믹 중심의 예술융합 교육이 청소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교육과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봄/가을학기 매주 토요일 20주 80시간, 여름캠프 20시간, 총 100시간 운영된 예술융합 교육 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체능·건강치유·기술 융합으로 리드믹을 중심으로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으로 구성되었다(이하 리드믹휴먼케어).

국외 교수 3명, 국내 교수·강사·연구원 51명, 총 54명이 매주 진행되는 리드믹을 중심으로 1~2회 특강을 진행하고 모든 그룹 수업에 2인 이상의 리드믹 부강사를 배정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의 리드믹 프로그램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초 요소를 활용한 내적 리듬형성을 통해 자기조절과 공감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20시간의 감각움직임은 몸의 구조와 올바른 움직임의 이해 및 소매틱스를 통한 감각이완으로 신체 불균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0시간의 표현예술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즉흥적으로 다루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의 확장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12시간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은 한옥체험, 오감테라피, 티클래스와 숲속

명상 등의 자연 요소를 통해 환경과 나,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을 형성하며 회복 탄성력을 키운다. 8시간의 진로 인성 교육은 예술기술 체험, 취·창업 특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20시간의 여름캠프에서는 국제문화체험으로 다양성과 유연함을 향상시키며 작품 전시와 리드믹 공연을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리드믹휴먼케어는 모방과 반복 훈련의 기능학습이 아닌 자기 몰입을 통해 발견한 일상속의 예술을 소통과 공감으로 유연하게 혼합하며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및 심리적 회복 및 치유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된 예술융합 인재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50명 중 심리적도의 사전, 사후 검사를 완료한 43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3	30.2
	여	30	69.8
연령	12세 이하	22	51.2
	13 - 18세	20	46.5
	19세 이상	1	2.3
학력	초등학교 재학	24	55.8
	중학교 재학	17	39.5
	고등학교 재학	2	4.7
계		43	100.0

2.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12].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속성 전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측정도구

본 프로그램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총 4가지 척도(회복탄력성 척도; YKRQ-27,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PPS-A-1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통계 분석은 R 4.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2.4.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된다 [14]. 청소년용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로, 총 27개 문항이 통제성(9문항), 긍정성(9문항), 사회성(9문항)이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YKRQ-27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YKRQ-27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8,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8로 나타났다.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개인이 자각하는 자기존중감을 측정한다 [15].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 5개(1번, 3번, 4번, 7번, 10번)와 부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 5개(2번, 5번, 6번, 8번, 9번)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부정 문항에 대한 역코딩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24,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43로 나타났다.

2.4.3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 Mermelstein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박준호와 서영석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PPS-A-10)를 사용하였다 [16]. KPPS-A-10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긍정적 지각에 대한 문항은 역코딩 후 분석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KPPS-A-10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658,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28로 나타났다.

2.4.4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는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및 개인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임영식과 정경은에 의해 개발되었다 [11]. 이 척도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는 개인요인의 개인적 역량, 가족/친구 요인의 소통, 지역사회 요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향유태도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은 즐거움 4문항, 자존감 4문항, 창의성 4문항으로 구성되며, 가족/친구 요인은 가족응집력 4문항, 우정 4문항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 요인은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며, 상호적 상호작용의 유대감 4문항, 공감 4문항, 참여 4문항, 교류 3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 일상화는 문화예술 태도 7문항, 문화예술 경험 변화 4문항으로 구성되며, 여가향유태도는 여가태도 6문항, 여가경험 5문항으로 총 57문항으로 구성된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 43명을 대상으로 각 척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척도 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2]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2]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2]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Psychological Resilience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회복탄력성	3.27	.47	3.46	.47	-2.21*

* $p < .05$, ** $p < .01$, *** $p < .001$

사전 회복탄력성과 사후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27점(SD=.47)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

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46점($SD=0.4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회복탄력성의 상승이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1(p<0.05)$ 로 나타나 사전 회복탄력성과 사후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3]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3]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Self-Esteem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22	0.48	2.31	0.49	-1.17
* $p < .05$, ** $p < .01$, *** $p < .001$					

n=43

사전 자아존중감과 사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22점($SD=0.48$)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31점($SD=0.49$)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자아존중감의 상승이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1.17(p=.249)$ 로 나타나 사전 자아존중감과 사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자아존중감은 상승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3.3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4]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사전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1.78점($SD=0.49$)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1.60점($SD=0.5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가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1.87(p=.069)$ 로 나타나 사전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4]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Perceived Stress

n=43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스트레스	1.78	0.492	1.60	0.57	1.87

* $p < .05$, ** $p < .01$, *** $p < .001$

3.4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5]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5]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5]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n=43

구분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역량	3.19	.40	3.42	.43	-2.90	.01**
즐거움	3.87	.88	4.24	.81	-2.39	.05*
자존감	2.03	.84	1.93	.93	0.68	0.502
창의성	3.67	.74	4.10	.80	-3.52	.01**
소통	3.67	.67	3.99	.71	-2.78	.01**
가족응집력	3.92	.73	4.15	.79	-1.79	0.081
우정	3.41	.87	3.83	.78	-3.04	.01**
사회적 상호작용	3.60	.64	3.97	.61	-3.46	.01**
유대	4.01	.88	4.26	.77	-1.74	0.089
공감	3.83	.89	4.23	.71	-2.66	.05*
참여	2.90	.69	3.38	.77	-3.58	.001***
교류	3.67	.85	4.00	.80	-2.26	.05*
문화예술일상화	3.51	.94	4.10	.78	-4.83	.001***
문화예술태도	3.54	.97	4.13	.77	-4.45	.001***
문화예술경험변화	3.44	.99	4.04	.91	-4.57	.001***
여가문화향유	3.79	.65	4.19	.68	-3.83	.001***
여가태도	4.06	.77	4.44	.70	-3.30	.001***
여가경험변화	3.47	.70	3.89	.82	-3.75	.001***

* $p < .05$, ** $p < .01$, *** $p < .001$

사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와 사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각 하위요인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총 5개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사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보다 사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적 역량의 평균은 3.19(SD=.40)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적 역량의 평균은 3.43(SD=.43)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즐거움과 창의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자존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0.68$, $p=.502$). 소통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소통의 평균은 3.67(SD=.67)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소통의 평균은 3.99(SD=.71)로 나타났다. 소통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우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가족응집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79$, $p=.081$).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60(SD=.64)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97(SD=.61)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공감, 참여, 교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유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74$, $p=.089$). 문화예술 일상화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문화예술 일상화의 평균은 3.51(SD=.94)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문화예술 일상화의 평균은 4.10(SD=.7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일상화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문화예술태도와 문화예술경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향유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여가문화향유의 평균은 3.79(SD=.65)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여가문화향유의 평균은 4.19(SD=.68)로 나타났다. 여가문화향유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여가태도와 여가경험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심리적 속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다섯 가지

요인(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적 역량 요인에서의 유의미한 상승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소통 요인에서의 상승은 참여자들이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의 개인적 역량 중 자존감 항목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예술융합 프로그램 참여의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거나,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사전검사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추정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사용한 결과,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역량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증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의 비교 등 연구 설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표본과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문화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예술 참여를 통해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17], 예술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8].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예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융합교육 정책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의 일

반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ment of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mcst.go.kr,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03&pDataCD=0417000000&pType=, (accessed August 9, 2024).
- [2] E. Hwang, “A study on the operation cases of arts convergence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5, no. 9, September 2023, pp. 1153-1164, doi: 10.33645/cnc.2023.09.45.09.1153.
- [3] E. Park, E. Hwang,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rt Convergence Program in Korean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6, no. 1, February 2024, pp. 161-172.
- [4]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 “Musik und Bewegungspädagogik/Rhythmik”, mdw.ac.at, <https://www.mdw.ac.at/stdmp/musik-und-bewegungspaedagogik/>, (accessed August 9, 2024).
- [5] H. Um, H. Kim, K. Noh,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igital Convergence and Multidisciplinary Education based on Rhythmik, Music Physiology and Musicians' Medicine, Performance Scie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3, no. 12, December 2019, pp. 1726-1733, doi: 10.6109/jkiice.2019.23.12.1726.
- [6] J. Oh, “16% of adolescents experience mental disorders... 7% urgently need professional help”,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74700530>, (accessed August 9, 2024).
- [7] J. Tae, “With Train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Why is Art Education No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1, no. 4, December 2011, pp. 1011-1032, doi: 10.9722/JGTE.2011.21.4.1011.
- [8] W. Shin, M. Kim, J.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November 2009, pp. 105-131.
- [9] J. Lee, S. Nam, M. Lee, J. Lee, S.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February 2009, pp. 173-189.
- [10] Y. Park, U. Ki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0, no. 4, November 2004, pp. 87-115.
- [11] Y. Lim, K. Jung, “Development of the scale of social effects of the Art & Cultural Education for Adolescent :Focused on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Forum for Youth Culture*, vol. 52, October 2017, pp. 103-132. pp. 103-132, doi: 10.17854/ffyc.2017.10.52.103.
- [12] W. R. Shadish, T. D. Cook, D. T. Campbell,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ized causal inference*,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2002.
- [13] R Core Team,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2024.

- [14] K. Ki, K. Kim, "Resilience Research Trends and Tasks: Focusing on the Concept and Scale of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7, no. 2, April 2018, pp. 157-175, doi: 10.28972/kjec.2018.17.2.157.
- [1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6] J. Park, Y.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9, no. 3, September 2010, pp. 611-629.
- [17] J. S. Catterall, S. A. Dumais, G. Hampden-Thompson,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Washington, DC, USA, Research Report #55, March 2012. [Online]. Available: www.arts.gov/impact/research/publications/arts-and-achievement-risk-youth-findings-four-longitudinal-studies.
- [18] M. Ezell, M. Levy, "An evaluation of an arts program for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vol. 54, no. 3, September 2003, pp. 108-114.